통일신보

무 소 속 대 변 지

제1호 【루계 제2152호】

주체101(2012). 1

1

일요일

음력 12. 8

6.15공동선언의 기치아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앞당기자!

영원히 우리 겨레와 함께 계신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은

김 정 일 장 군 의 노 래

1. 백두산 줄기내려 금수강산 삼천리
장군님 높이 모신 환호성 울려가네
태양의 위업 빛내신 인민의 령도자
만세 만세 김정일장군

2. 대지의 천만꽃도 그 사랑을 전하고
동서해 푸른 물도 그 업적 노래하네
주체의 락원 가꾸신 행복의 창조자
만세 만세 김정일장군

3. 강철의 담력으로 사회주의 지키여
내 나라 내 조국을 세상에 떨치시네
자주의 기치 높이 든 정의의 수호자
만세 만세 김정일장군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은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주체100(2011)년 10월8일유훈에 따라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에 관한 보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가 주체100(2011)년 12월 30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정치국회의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이 참가하였다.

정치국회의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주체100(2011)년 10월8일 유훈에 따라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시였다는것을 정중히 선포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일어서서 열광적인 박수로 환영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강성국가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킬데 대하여》를 채택하였다.

결정서는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너무도 일찌기, 너무도 애석하게 잃은 크나큰 상실의 아픔과 비분으로 피눈물을 삼키고있으며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강성국가 건설위업,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갈 굳은 맹세를 다지고있다고 지적하였다.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서 빨찌산의 아들로 탄생하시여 위대한 혁명가로 성장하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일찌기 룡남산마루에서 조선을 온 누리에 빛내이실 력사의 선언을 하시던 그 나날로부터 장장 수십성상 우리 조국의 륭성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이 세상 그 누구도 체험해보지 못한 온갖 고생을 다 겪으시며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초강도의 강행군길을 이어가시다가 야전렬차에서 순직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주체의 사상, 리론 및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로 정식화하시고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키시였으며 온 사회 주체사상화의 기치높이 우리 당과 군대, 국가를 김일성동지의 당과 군대, 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고 민족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 당은 유일사상체계가 확고히 서고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룬 불패의 당으로, 우리 혁명무력은 천하무적의 백두산혁명강군으로 위용떨칠수 있었으며 경제건설에서 세인을 경탄시키는 기적과 변혁이 창조되고 20세기 문예부흥의 새로운 개화기가 펼쳐질수 있었다.

혁명적도덕의리의 최고화신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류정치사가 알지 못하는 수령영생위업실현의 숭고한 귀감을 창조하시여 어버이수령님의 거룩한 존함과 불멸의 혁명생애와 업적이 주체조선의 무궁한 력사와 더불어 영원히 빛을 뿌리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세계사회주의체계의 붕괴와 민족의 대국상,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압살공세와 혹심한 자연재해속에서 선군으로 어버이수령님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시였으며 우리 조국을 일심단결된 불패의 정치사상강국으로, 그 어떤 원쑤도 감히 범접할수 없는 강위력한 핵보유국, 위성발사국으로 전변시키는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시대에 우리 조선은 외세의 온갖 침략과 간섭의 력사에 영원히 종지부를 찍고 그 누구도 건드릴수 없는 자주의 대강국으로 솟아올랐으며 확고한 정치군사적담보를 가지고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을 전면적으로 다그치는 길에 들어서게 되였다.

결정서는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신 김정일동지께서 준엄한 사회주의수호전의 나날에 승리할 래일을 내다보시고 경제강국건설의 휘황한 설계도를 펼치시였으며 그 실현을 위한 전인민적인 총진군을 진두에서 현명하게 이끌어오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21세기 경제발전의 추이를 명철하게 통찰하시고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나날 CNC공업화의 초행길을 개척하시며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천리혜안의 선견지명과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에 새 세기 산업혁명의 장쾌한 포성이 울려퍼지고 우리 경제가 지식경제시대에로 이행하는 경이적인 현실이 펼쳐질 수 있었다.

삼복철의 무더위와 폭우, 대소한의 강추위와 사나운 눈보라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석수쏟아지는 지하막장과 바람세찬 발전소건설장을 비롯한 온 나라 방방곡곡을 찾고 또 찾으시며 2012년에로 향한 전인민적대고조진군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강행군길에서 행복과 번영의 래일을 예고하는 승리의 변이 다계단으로 일어나고 전당, 전국, 전민을 최후돌격전에로 부르는 함남의 불길이 거세차게 타오르게 되였다.

참으로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전생애는 혁명의 최전방에 최고사령부를 두시고 한평생을 야전일과로 수놓으시며 우리 조국과 민족의 무궁번영을 위한 만년토대를 마련하여주신 불세출의 전설적영웅, 절세의 애국자의 가장 빛나는 한생이였다.

결정서는 오늘 우리 혁명의 진두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유일한 후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서계신다고 하면서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이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슬픔을 천백배의 힘과 용기로 바꾸어 주체혁명의 위대한 새 승리를 향하여 더욱 억세게 투쟁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결정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령도자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어버이장군님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갈데 대하여 강조하고 해당한 결정들에 언급하였다.

결정서는 다음으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위업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갈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결정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리 당의 통일단결과 령도의 유일중심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결사옹위하며 정치사상강국의 위력을 더욱 높이 발양시킬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결정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선군사상과 선군혁명로선을 변함없이 틀어쥐고 사회주의군사강국의 위용을 더욱 높이 떨치며 혁명의 전취물을 굳건히 수호해나갈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결정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지펴주신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 함남의 불길이 온 나라에 세차게 타번지게 하여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킬데 대해 언급하고 해당한 과업들을 제시하였다.

결정서는 우리 조국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문화건설사상이 전면적으로 꽃펴나는 21세기 문명강국으로 전변시킬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정치국회의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0돐에 즈음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를 심의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탄생 100돐에 즈음하여 공동구호 발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탄생 100돐에 즈음하여 12월 31일 공동구호를 발표하였다.

공동구호는 우리는 하늘처럼 믿고따르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너무도 뜻밖에, 너무도 일찌기, 너무도 애석하게 잃은 대국상의 해를 보내고 주체101(2012)년을 맞이하게 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피눈물의 언덕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거룩한 존함으로 빛나는 우리 민족의 100년사를 크나큰 격정속에 돌이켜보고있으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슬픔을 천백배의 힘과 용기로 바꾸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기어이 실현하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철석의 신념과 의지에 넘쳐있다.

지난 100년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민족의 사상과 정신, 우리 조국의 면모와 국력, 지위에서 천지개벽이 이룩되고 조선민족의 5천년력사에 일찌기 없었던 륭성번영의 대전성기가 펼쳐진 위대한 승리와 영광의 100년이였다.

지금으로부터 100년전인 주체1(1912)년 4월 15일 만경대의 수수한 초가집에서 근로하는 인민의 아들로 탄생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그 누구도 지닌적이 없는 천재적예지와 탁월한 령도력, 숭고한 인덕을 한몸에 체현하시고 심오한 사상리론과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주체조선의 새 기원을 열어놓으시였으며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사와 인류해방투쟁사에 영원히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우리 인민에게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불굴의 정신력을 안겨주신 걸출한 사상리론가, 위대한 스승이시며 두 제국주의강적을 타승하시여 생사존망의 기로에 놓였던 우리 민족에게 재생의 길을 열어주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두단계의 사회혁명과 두차례의 복구건설, 여러 단계의 사회주의건설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빈터우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신 혁명과 건설의 영재이신 김일성동지의 혁명업적은 주체조선의 100년사와 더불어 찬연히 빛을 뿌리고있다.

김일성동지는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실뿐아니라 조국통일의 3대헌장과 주체적력량을 마련하시고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사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민족의 태양이시였으며 주체의 광휘로운 빛발로 자주의 새시대를 개척하시고 혁명과 건설의 세계적모범을 창조하시여 진보적인류에게 투쟁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신 세계사회주의운동의 걸출한 령도자, 인류해방의 구성이시였다.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김일성민족의 100년사에는 어버이수령님의 사상과 령도를 계승하여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을 백전백승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성스러운 혁명력사가 력력히 아로새겨져있다.

조국해방의 서광이 비쳐오던 주체31(1942)년 2월 16일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서 빨찌산의 아들로 탄생하시여 위대한 혁명가로 성장하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하는것을 필생의 사명으로 내세우시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가장 친근한 동지, 가장 충직한 전우가 되시여 혁명과 건설을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대로 줄기차게 전진시켜오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온 사회 주체사상화의 기치높이 우리 당과 군대, 국가를 김일성동지의 당과 군대, 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고 인류정치사가 알지 못하는 혁명적도덕의리로 수령영생위업실현의 숭고한 귀감을 창조하시였으며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로동당시대의 일대 전성기를 펼치시고 민족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시였다.

세계사회주의체계의 붕괴와 민족의 대국상,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악랄한 포위압살공세와 혹심한 자연재해속에서 선군정치로 어버이수령님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시였으며 우리 조국을 일심단결된 불패의 정치사상강국으로, 그 어떤 원쑤도 건드릴수 없는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신것은 김정일동지께서 이룩하신 최대의 업적으로 빛을 뿌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강성국가건설의 웅대한 목표를 제시하시고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초강도의 현지지도강행군길을 정력적으로 이어가시며 전인민적인 대고조진군을 진두에서 이끄시여 강선의 봉화에 이어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과 함남의 불길이 온 나라에 타오르게 하시고 경제강국건설의 밝은 전망을 열어놓으시였다.

(4 면 으 로 계 속)

불멸의 그 업적 만대에 길이 빛나리

선군조선의 2012년

주체101(2012)년 새해의 아침이 밝았다.

설날아침이면 인민들에게 먼저 첫 축복을 보내시던 어버이의 인자하신 미소인양 장엄한 해돋이가 조국강산을 비친다.

2012년은 몇해전부터 세계가 주목해오던 해이다. 2012년에 세계의 정치, 경제의 모습이 어떻게 될것인가? 그러한 전문가들과 언론들의 예상은 대체로 비관적이였다. 많은 나라들에서 선거가 진행되고 권력이동기의 정치적불안이 조성될수 있고 세계적인 경제위기도 그때 가서 더욱 심화될수 있다는 리유에서였다. 지난해 미국 뉴욕대학의 한 교수는 《세계경제가 늦어도 오는 2013년에 강력한 폭풍을 맞을수 있다.》고 진단하였다.

현실적으로 2011년은 세계자본주의의 정치, 경제적위기의 심화와 사람들의 생존의 위기로 저물고 밝아온 새해의 전망도 암울하다. 유럽지역을 휩쓰는 대금융위기, 국내총생산액보다 훨씬 더 많은 빚을 져 세계최대의 채무국신세에 놓인 미국의 극심한 경제위기, 일본의 대지진과 세계적인 방사능피해, 《월가를 점령하라!》는 구호로부터 시작된 1%의 가진자, 특권층을 반대하는 99%의 저항의 국제적인 물결, 자본주의제도와 세계화에 대한 인류의 환멸과 배척, 많은 나라들을 휩쓸고있는 사회정치적혼란과 무질서, 위기…

이와 반면에 우리 공화국에서 2012년의 아침은 희망과 락관, 승리의 노을속에 밝아왔다.

공화국은 이미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겠다고 선언하였다. 그해가 밝아온 지금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의 얼굴마다에는 승리의 신심과 락관이 차넘친다. 이미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올라선 공화국은 최근년간 경제강국건설에서도 눈부신 성과를 이룩하여 강성대국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닦아놓았다. 재미통일학연구소 소장은 인터네트에 실은 글에서 2012년의 공화국에 대해 《전세계 자본주의시장경제가 신자유주의의 파산이라는 직격탄을 맞고 무너지고있는데 정반대로 안정적으로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유일한 나라는 북》이라고 찬양하였다.

사회정치분야에서도 공화국은 지금 최대의 안정과 단결을 과시하고 있다. 그처럼 견디기 어려운 최대의 국상을 당하고서도 군대와 인민이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두리에 더욱 철통같이 뭉친 현실에 세계는 경탄과 부러움을 표시하고 있다.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100돐이 되는 올해가 공화국의 력사에서 가장 뜻깊고 빛나는 승리의 해로 되리라는것은 더 론할 여지도 없다.

하다면 선군조선의 희망과 승리의 2012년은 어떻게 밝아온것인가.

그것은 절세위인의 탁월한 령도와 그 두리에 굳게 뭉쳐 힘차게 나아가는 군대와 인민의 애국의 열의와 노력이 안아온것이다.

17년전 7월의 피눈물속에서 몸부림치는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한몸에 걸머지시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부강조국건설을 위한 대장정에 오르시였다.

아직은 중중첩첩 가로막는 시련의 바다, 헤쳐가야 할 천만리 길이 앞에 있었지만 그이께서는 조국의 미래를 위한 구상속에서 남먼저 새날을 맞으시며 승리의 새 아침을 불러오는 태양으로 한생을 사시였다.

그 길에서 고생이란 고생은 제일 많이 겪으시며 천만의 심장을 울리는 눈물겨운 고난사를 엮어오신 경애하는 장군님이시였다.

인민은, 민족은 그이를 태양으로 받들어모시였건만 그이께서는 단 하루도 편안하게 락을 누리지 않으시였다.

2. 8비날론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과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을 위하여 더 많은것을 해놓아야 하겠는데 시간이 한초한초 흐르는것이 안타깝다고 하시며 가까운 앞날에 우리 인민을 보란듯이 내세우자고 하시던 위인의 그 음성이 사무치는 그리움속에 절절히 들려온다.

인공지구위성이 두번째로 우주에 날아오르고 핵뢰성이 행성을 뒤흔들던 변이 난 그해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말씀하시였다.

나는 우리 인민이 절대로 비굴하게 살지 않게 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분이시였기에 그이께서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정력을 바치시며 조국의 강성대국건설대전을 진두지휘하시였다. 군대와 인민이 있는 곳을 집무실로 여기시고 야전렬차를 저택으로 여기시며 온 나라 방방곡곡을 쉬임없이 현지지도하시였다. 그 길은 눈보라강행군, 삼복철강행군 등 초강도강행군의 길이였다.

우리 조국의 강성대국건설사에 뜻깊게 기록될 지난 한해에도 장군님께서는 년초부터 년말까지 잠시도 쉬지 않으시고 희천련하기계종합공장, 대홍청년영웅광산, 고산과수농장, 단천항건설장, 만수대지구건설장, 동봉협동농장, 중앙양묘장을 비롯한 헤아릴수 없이 많은 기업소와 단위, 군부대들을 찾으시여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군대와 인민을 강성대국건설대전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나라와 인민을 위해 중국과 로씨야의 씨비리 및 원동지역에 초강도렬차강행군의 자욱을 새겨가시였고 조국에 돌아오시는 길로 겹쌓인 피로를 푸실사이 없이 강성대국건설의 주요격전장인 희천발전소건설장부터 찾아주시였다.

한해가 다 저물어가던 지난해 12월의 어느날에도 장군님께서는 찬바람을 맞으시며 하나음악정보쎈터의 현장과 광복지구상업중심의 매대들을 찾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인민들에게 훌륭한 노래들을 더 많이 들려주게 된 기쁨이 크시여 자신께서 지난 수십년동안 체계적으로 수집한 음악작품들을 모두 보내주겠으니 그것을 입력시켜 우리 인민들이 널리 감상하고 리용할수 있게 하라고 하시였다.

그렇게 초강도현지지도강행군을 이어가시다가 찬바람부는 12월의 그날에 야전렬차에서 순직하신 민족의 어버이.

한 나라의 지도자가 맵짠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한겨울에 야전렬차에서 순직하신 례는 동서고금 그 어디에도 없다.

정녕 조선의 2012년은 조국과 인민을 위한 장군님의 애국헌신과 끝없는 자기희생이 밑뿌리가 되고 자양분이 되여 밝아온 자랑찬 승리와 희망의 해이다.

고귀한 발자취로 인생길우에 애국, 애민의 열하와 같은 시를 남기신분, 그이와 꼭같으신 또 한분의 태양이 솟은 2012년이여서 온 민족은 슬픔의 바다에서 거연히 노도쳐 일어섰다.

세계의 다난다사한 정치사를 들여다보면 후계자를 잘 만나지 못해 쓰라린 곡절과 가슴아픈 비극을 당하는 나라와 인민이 적지 않다.

수령이 오랜 세월 간고한 투쟁속에서 이루어놓은 업적도 후계자를 잘 만나지 못하면 하루아침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나라와 인민은 수난자의 운명을 면치 못한다는것이 력사가 남겨놓은 피의 교훈이다.

그러나 조선은 또 한분의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여 대대로 누려온 수령복, 장군복을 오늘도 긍지높이 노래하고있다.

《위대한 계승자》, 《탁월한 령도자》,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과 꼭같으신 분》, 《자애로우신 인민의 지도자》…

피눈물의 12월에 슬픔에 목놓아우는 인민을 일으켜세워주시고 민족자주위업의 승리를 위한 애국의 진군길로 힘있게 떠밀어주시여 조선을 영원히 해솟는 나라로 되게 해주신 민족의 구세주, 절세의 위인이신 김정은장군.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넋과 숨결을 그대로 이어받으시고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의 다함없는 존경과 신뢰,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시는 김정은최고령도자를 모시여 선군조선의 오늘은 물론이고 래일은 더욱 휘황찬란할것이다.

절세의 위인을 변함없이 높이 받들어모시고 나아가는 조선은 영원히 자기의 존엄과 영예를 누리에 떨쳐갈것이다.

본사기자 리 경 월

그 뵙 습 니 다

새해의 첫아침 민족의 어버이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 대하되여 흐르는 만수대언덕에서 우리는 비전향장기수 석용화선생을 만났다.

가슴에이는 크나큰 상실의 아픔속에 새해를 맞고보니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이 못견디게 그리워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수령님의 동상을 찾았다는 석용화선생이였다.

장군님의 품에 안겨 보낸 꿈같은 나날들을 더듬어보는 그의 주름잡힌 눈가에는 맑은 이슬이 반짝이였다.

고통과 설음, 기쁨과 행복. 이것은 두 제도에서 살아온 석용화선생이 새해를 맞을 때마다 체험하는 판이한 감정이다.

《설날은 누구에게나 새해에 대한 희망으로 가슴부푸는 기쁜 날입니다. 하지만 내가 남쪽에서 맞고보낸 이 날에 대한 회억이란 인간의 육체와 정신을 찢어발기는 참을수 없는 고통과 설음이 전부였습니다.》

인간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는 남조선의 감옥에서 수없이 맞고보낸 새해의 첫날들을 지금도 잊을수 없다고 말하는 석용화선생. 통일의 원쑤들은 전향을 하지 않는다는 한가지 리유로 갖은 고문을 들이대다 못해 누구나 즐겁게 보내는 설날에조차 그를 먹방에 가두어놓군 하였다. 전향을 거부하는 그로 하여금 새해를 맞으며 누구나 누리는 인간의 초보적인 희망도, 기쁨도 가질수 없게 하려는 심보에서였다. 하여 한치앞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먹방에서 새해가 밝아오는지조차 알지 못한 석용화선생이였다. 명절이라고 하여도 차례지는것이란 한줌도 안되는 깡보리밥에 멀건 시래기국이 전부였으니 여기에 무슨 기쁨이 있었으랴.

감옥밖을 나섰어도 달라진것이란 아무것도 없었다. 잘사는 사람들이 풍청대며 희희락락거리는 설도 아빠트경비와 주차장경비를 서며 하루하루 근근히 연명해가는 그에게는 아무런 즐거움도 가져다주지 못했었다.

하지만 그 어떤 역경도 시련도 그의 마음속깊이 간직된 신념을 꺾을수 없었다. 오직 위대한 장군님만 믿고 따르면 반드시 승리하고 행복은 꼭 온다는 신념으로 굴함없이 싸워 그는 끝끝내 장군님의 품에 안길수 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아 공화국영웅으로, 조국통일상수상자로 영광과 행복의 절정에 올려세워주시였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지옥같은 감옥에서 지내온 저희들이 누구나 부러워할 훌륭한 살림집에서 살도록 해주신분도, 남쪽에서 빼앗긴 청춘을 되찾아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라고 갖가지 보약들을 보내주시고 백두산, 금강산, 묘향산을 비롯한 명승지들에서 즐겁게 휴양도 할수 있도록 친혈육의 정을 부어주신분도 우리 장군님이십니다.》

자기들을 신념과 의지의 강자로 온 세상에 높이 내세워주시고 추우면 추울세라 더우면 더울세라 주실수 있는 온갖 사랑과 은정을 다 돌려주신 한없이 자애로운 그이의 영상이 눈앞에 삼삼히 어려와 잠을 이룰수 없었다는 석용화선생이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해만가는 은정속에 이제는 더 바랄것 없건만 사랑하는 전사들과 인민들에게 더 큰 행복을 안겨주시려 12월의 강추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생의 마지막시기까지 불철주야의 현지지도강행군길을 걷고 또 걸으신 어버이장군님.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앞두고, 강성국가의 대문이 활짝 열리게 될 2012년 새해를 눈앞에 두고 떠나가시였으니 더더욱 비통한 심정을 금할수 없어하는 비전향장기수들이다.

《태양은 절대로 꺼지지 않습니다. 사상과 령도, 풍모에서 우리 장군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여 조국의 미래는 끝없이 밝고 창창합니다.》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안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통일강성대국건설에 한몸 다 바치리라, 이것이 새해의 첫아침 만수대언덕에서 다진 석용화선생의 불같은 신념의 맹세이다.

본사기자 박 원 평

흰 눈 을 보 며

피눈물의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은 이 땅의 거리와 마을, 도시와 농촌들에는 하얀 눈이 은빛세계를 펼치고 있다.

이 겨울에 류다르게 많이 내린 흰눈이다.

설을 맞으며 그 눈을 보니 장군님생각이 더욱 못견디게 갈마든다.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한해가 다 가는 마지막 12월에도 찬눈길을 헤치시며 초강도현지지도강행군의 길을 이어가시다가 렬차에서 순직하신 장군님.

그이께서 사랑하는 인민과 마지막으로 영결하신 12월 28일에도 온 하루 눈이 내리였다.

찬눈길 헤쳐오신 장군님의 강행군현지지도가 생각나서 이제는 그만 눈이 내렸으면 하고 누구나 간절히 바랬지만 하염없이 내리고 또 내리던 눈송이들.

어찌보면 흰눈은 위대한 장군님과 하많은 인연을 맺고있는듯싶다.

그이께서는 흰눈덮인 백두산에서 탄생하시여 사나운 눈보라를 헤치시며 유년시절을 보내시였다. 그이의 장구한 선군혁명령도사도 비바람, 눈보라속에서 흘러왔다. 피눈물을 뿌리며 다박솔초소를 찾아가신 1월의 그날에도 강산은 흰눈에 덮여있었다. 고난의 행군시기 자강도에로의 수천여리 강행군길도 사나운 눈보라길이였다. 조국의 방선을 지키기 위해 넘고 오르신 철령과 오성산에서도 장군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찬눈을 맞으시였던가.

장군님께서 겨레의 통일념원을 실현하시기 위해 6.15시대, 우리 민족끼리의 시대를 펼친 력사적인 평양상봉을 구상하신 곳도 눈보라날리는 백두산이였다.

장군님도 인간이신데 꽃향기 만발한 계절을 즐기고싶은 생각이 왜 없으시였으랴. 하지만 그이께서는 한생 세찬 눈보라길을 걸으시였다. 그 길이 조국과 인민을 위한 애국헌신의 길이였기에 자신은 눈바람, 비바람을 다 맞으시면서도 인민들에게는 하나라도 더 좋은것, 편안한것이 차례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시였다.

그이께서 나라와 민족, 인민을 위해 기울이신 사랑속에 내 조국의 국력은 강해지고 인민들의 행복은 커만 갔다. 조국인민들이 장군님 찬눈길을 더는 걷지 마시라고 목이 메여 절절히 노래했건만 장군님께서는 그 모든 고생도, 찬눈도 달게 받아들이시며 조국과 인민을 위한 눈보라강행군, 초강도강행군을 순간도 멈추지 않으시였고 거기에서 자신의 락을 찾으시였다.

참으로 장군님의 한생은 고난과 역경을 앞장에서 헤치시며 인민의 행복을 창조해오신 위대한 빨찌산아들의 한생이였으며 모든 락은 인민들에게 돌리고 고생은 자신이 다 맡아하신 인민의 어버이의 눈물겨운 애국헌신의 한생이였다.

인민을 위해 생애에 그처럼 많은 눈을 맞으시고 떠나가시는 마지막날에도 눈보라를 맞으시며 가신 어버이장군님.

아마도 장군님께서는 떠나가시는 마지막날에조차 인민들에게 따뜻한 봄날, 행복의 봄날을 영원히 펼쳐주시려고 이 땅의 눈보라, 찬눈을 자신께서 다 안고 가시였으리라.

그래서 인민들은 더욱 목놓아울었고 장군님 마지막으로 가시는 사랑의 길우에 찬눈이 쌓이지 않게 쓸고 또 쓸며 격정의 눈물을 쏟은것이리라.

흰눈은 오늘도 인민에 대한 장군님의 극진한 사랑을 전하며 사람들의 가슴속깊이에 새겨져있다.

본사기자 박 단 희

다 박 솔 초 소 의 설 경

소탈하고 다재다능하신 분

《김정일위원장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과거 남〈한〉에서 묘사한것이 제대로 된것이 아니였다. 김정일위원장은 아주 머리가 비상했다. 리론적이기보다는 즉흥적이다. 또 자상하고 웃사람을 위하는 자세를 보였다. 내가 다리가 불편하다고 내 숙소인 초대소에서 대화를 했다. 륭숭한분이고 자상한분이다. 여하간 보통사람은 아니다.》(남조선 전 《대통령》 김대중)

《김정일위원장은 좌중을 휘여잡는 탁월한 통솔력을 갖고있었다.》(2000년 6월 평양수뇌상봉때 동행한 장상 전 리화녀대 총장)

《소탈하고 자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으며 해바라기씨로 볶으면 맛있다는 등 음식에 대해 일일이 설명해 음식에 조예가 상당한것 같았다.》(현대그룹 회장 현정은)

《김위원장과 많은 대화를 했다. 결례되는 얘기일지 모르나 (김위원장은) 무척 호탕하신분이였다. 완전한 자신감을 갖고있었다. 통일에 대한 열정과 민족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있었다.》, 《김위원장은 미국이나 서방국가들, 특히 〈한국〉의 여러 국내문제를 알 정도로 박식했다.》(전 문화관광부 장관 박지원)

《김정일위원장을 막상 만나고나니 너무 반갑고 친절하면서도 편하게 대해주시더라고요.》, 《일본에서 활동한다는 이야기를 듣더니 쉬운 일이 아닌데 대단하다고 칭찬했다.》(남조선 가수 김련자)

《김정일총비서는 서유럽식양복을 입지 않는다. 주로 잠바옷차림이고 정장을 해야 하는 자리에서는 닫긴깃양복을 입는다. 그분이 서유럽식양복을 입지 않는 리유를 물었을 때 한 측근인사는 화려한 옷차림은 나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말씀이 계셨다고 했다. 가장 좋아하는 꽃이 목화꽃이라는 점은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수 있을것이다. 목화꽃은 화려하지 않으나 유용하다.》, 《내가 아는 김총비서는 다양한 방면에 화제가 풍부한 다재다능한분이다. 이같은 측면이 성격적대담성과 맞물려 정책의 〈의의성〉을 빚어내는것으로 생각된다.》(재미언론인 문명자가 쓴 《내가 본 김정일총비서》 중에서)

본사기자

(2면에서 계속)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민족끼리의 숭고한 리념을 구현하여 6.15통일시대를 열어놓으신 민족의 어버이,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온 겨레의 다함없는 흠모와 신뢰를 받으시였으며 반제자주의 기치높이 세계사회주의운동과 인류자주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사회주의와 정의의 위대한 수호자로 높은 국제적권위를 지니고계시였다.

참으로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혁명의 최전방에 최고사령부를 두시고 조국의 륭성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세계의 자주화를 위하여 한평생을 야전일과로 수놓으시며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쳐 우리 민족사와 인류력사에 영원히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절세의 애국자, 현시대의 가장 걸출한 정치원로이시였다.

동서고금이 알지 못하는 대성인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조국과 인민, 시대와 력사앞에 그토록 거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시고서도 자신의 동상 하나 세우지 못하게 하시였지만 장군님의 거룩한 위인상과 크나큰 업적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속에 불멸의 대기념비로 높이 솟아있다.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김정일동지와 같은 인류의 영재, 불세출의 전설적위인들을 낳은것은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자랑이며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여 우리 당은 자주시대를 선도하는 로숙하고 권위있는 당으로, 우리 혁명무력은 무적필승의 백두산혁명강군으로 위용떨칠수 있었고 우리 인민은 전인미답의 사회주의길을 앞장에서 개척해나가는 혁명적인민으로 존엄떨칠수 있었다.

우리 민족의 력사에는 김일성시대, 김정일시대처럼 주체성과 민족성이 강하고 민족의 존엄과 국력이 만방에 높이 떨쳐진 시대는 일찌기 없었으며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모시고 승리와 영광으로 수놓아온 주체조선의 100년사가 있어 우리 민족의 5천년력사가 빛나고 끝없이 찬란한 천만년미래가 확고히 담보되여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가는것은 수령님의 후손들이고 장군님의 전사, 제자들인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의무이며 숭고한 도덕의리이다.

우리는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진군길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0돐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 70돐을 맞이하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0돐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 70돐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천추만대에 빛내이며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절대불변의 혁명적신념과 숭고한 도덕의리를 만천하에 시위하는 력사적인 계기이다.

우리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후손답게,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전사, 제자답게 수령님의 탄생 100돐과 장군님의 탄생 70돐을 가장 뜻깊게 기념하며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주체101(2012)년에 강성국가의 대문을 기어이 열어제끼고 주체혁명의 위대한 새 승리를 이룩해나가야 한다.

우리 혁명의 길은 간고하고 우리앞에 나선 과업은 방대하지만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평생의 로고와 심혈을 바쳐 마련하여주신 고귀한 혁명유산인 백전백승 강철의 조선로동당과 당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친 군민대단결, 천하무적의 백두산혁명강군과 자립경제의 막강한 토대가 있는 한 우리 혁명은 필승불패이며 우리에게는 극복 못할 난국, 점령 못할 요새가 없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전당, 전군, 전민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슬픔을 천백배의 힘과 용기로 바꾸어 나라의 정치군사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거세차게 지펴올림으로써 뜻깊은 주체101(2012)년을 우리 혁명의 확고부동한 계승성과 불패성을 만방에 떨치는 위대한 승리의 해, 강성국가의 대문을 열어제끼는 자랑찬 부흥의 해로 빛내이자는것을 열렬히 호소하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0돐에 즈음한 공동구호를 발표한다.

위대한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강성번영을 위하여 총공격 앞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0돐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 70돐을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자!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후손답게,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전사, 제자답게 투쟁하며 창조해나가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투쟁강령으로 틀어쥐고 빛나게 실현해나가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선군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천추만대에 빛내여나가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필생의 뜻과 유훈을 받들어 강성국가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키자!

모든것을 위대한 김정일동지식으로!

위대한 주체사상, 선군사상 만세!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제시하신 혁명적인 원칙과 로선, 정책을 한치의 양보도, 한치의 드림도 없이 철저히 관철하자!

위대한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을 세계가 우러러보게 하라!

위대한 장군님의 령전에서 다진 피눈물의 맹세를 철저히 실천해나가자!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

위대한 김일성조국, 김정일장군님의 나라를 김정은동지따라 만방에 빛내이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조국과 혁명, 인민의 운명이며 백전백승의 기치이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전당이 단결하고 전군이 단결하며 전민이 단결하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와 함께라면 기쁨도 슬픔도 시련도 영광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따라 백두의 행군길을 꿋꿋이 이어가자!

백두의 공격정신으로 폭풍쳐 내달리자!

단숨에!

조선로동당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정치적향도자이며 당의 전투력과 령도적역할을 높이는것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위업, 김정일동지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기 위한 선결조건이며 근본담보이다.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만세!

주체혁명위업수행의 중대한 력사적시기의 요구에 맞게 당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전당과 온 사회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유일적령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자!

공동구호에서는 당대표자회정신을 당사업에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과업들, 인민군대와 안전보위, 인민보안, 사법검찰기관앞에 나서는 과업들, 로농적위대원들과 붉은청년근위대원들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였다.

공동구호에서는 또한 국방공업부문이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할데 대한 과업과 경공업부문, 농업부문, 전력, 석탄, 금속, 철도운수부문앞에 나서는 구체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기계혁명, 공구혁명을 일으키고 중요대상건설을 다그치며 과학과 기술, 교육과 보건, 체육, 문화예술부문 등 여러 부문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였다.

공동구호에서는 조국통일부문과업들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조국통일3대원칙발표 40돐, 10.4선언발표 5돐이 되는 2012년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자!

내외반통일세력들의 대결과 전쟁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자!

동족대결에 미쳐날뛰는 극악한 매국역적의 무리를 쓸어버리자!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밑에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의 새 아침을 앞당겨오자!

공동구호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대외활동업적을 끝없이 빛내여나갈데 대해 언급하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따라 피눈물의 바다에서 산악같이 일떠서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킨 영웅적고난의 행군사가 우리를 고무하고있으며 장군님께서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높이 울려가신 야전렬차의 기적소리가 우리모두를 계속혁명의 길, 애국의 길로 힘차게 부르고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혁명의 진두에서 높이 울리신 야전렬차의 기적소리가 대고조의 승전포성으로 온 강산에 메아리치게 하자!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지펴주신 대고조불길이 강성부흥의 장엄한 축포로 터져오르게 하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0돐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 70돐을 맞는 2012년을 영스러운 계승의 해, 자랑찬 강성부흥의 해로 빛내이자!

본사기자

민족의 대국상앞에 저지른 리명박역적 패당의 만고대죄를 끝까지 결산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명

우리 군대와 인민은 지난 12월 17일 너무나도 뜻밖에, 너무나도 애석하게, 너무나도 일찌기 온 나라 대가정의 어버이를 잃었다.

상실의 아픔이 너무나 크고 무거워 흘리는 피눈물은 바다를 이루고 피타는 곡성은 산천초목을 울리고있다.

우리의 김정일동지는 세계가 공인하는 위대한 령도자이시며 대적들을 이기시는 강철의 령장이시고 우리 군대와 인민을 한품에 안아키우신 자애로운 어버이이시기때문이다.

이제 우리 민족은 물론 온 세계가 얼마나 위대하고 걸출한 위인을 잃었는가를 날이 갈수록 더욱 사무치게 절감하게 될것이다.

우리는 이번 대국상기간 우리가 안고있는 슬픔을 함께 나누며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하고 진심으로 되는 위로와 고무격려를 보내준 세계 여러 나라 국가수반들과 당지도자들, 정부, 단체 각계 인사들과 해내외 동포들을 고맙게 생각하며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다.

온 민족이 겪고있는 이번 대국상앞에 유독 남조선괴뢰들만은 천추만대를 두고도 씻지 못할 대역죄를 저질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먼저 이번에 남조선괴뢰들이 감행한 악행의 진상부터 세계와 민족앞에 밝힌다.

외세에 의하여 비록 나라는 북과 남으로 갈라져있지만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분렬의 아픔을 안고있으면서도 언제나 사상과 제도우에 민족이 있다는 철리를 신조로 삼고 하나된 민족을 더없이 귀중히 여기고있다.

그러나 남조선괴뢰들은 이번에도 하나의 민족으로 살기를 스스로 그만두기로 작정하고 동족의 아픈 가슴에 못을 박고 쓰린 상처에 칼질을 하는 란동을 부리였다.

우리의 중대보도가 나가기 바쁘게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와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해외대표부들까지 비상근무태세로 이전시키면서 마치 바라던 《긴급사태》가 도래한것처럼, 우리의 《체제변화》를 유도할 《호기》라도 온것처럼 분주탕을 피웠다.

괴뢰 륙, 해, 공군부대들에는 경계비상과 전투비상을 하달하고 지상, 해상, 공중에서 전쟁전야의 충돌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30여개의 우익보수반동단체들을 전연에 내몰아 여러차에 걸쳐 감히 우리의 최고존엄을 헐뜯고 소요를 선동하는 내용의 반공화국삐라까지 살포하는 광기를 부리였다.

바로 이러한 악행의 앞장에 만고역적 리명박역도가 서있었다.

역적패당의 이러한 악행은 추모분위기를 틈타 어리석은 목적을 실행해보며 그렇게 안되는 경우에는 그 무슨 《급변사태》와 《체제변화》를 유도해보려는 고약한 속내의 발로였다.

예로부터 이웃의 불상사에 주먹질하고 옆구리를 찔러 리속을 챙기는 처사는 인간이 할짓이 아니라 하였다.

국교도 없고 언어와 피부색이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 군대와 인민의 슬픔을 헤아려 계획하였던 군사훈련과 연습을 중단하고 조의를 표시하면서 추모기간까지 설정한 례의에 비추어볼 때 역적패당의 광기는 인륜도덕을 무참히 짓밟는 불망나니의 처사가 아닐수 없다.

민족의 대국상앞에 저지른 리명박역적패당의 악행은 남녘동포들의 조의표시와 조문단 북행길을 한사코 막아나선데서 극치를 이루었다.

청천벽력과도 같은 비보에 접한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사들과 동포들의 조의표시와 조문단파견요구는 진보와 보수, 여당과 야당에 관계없이 그 열기가 눈물겨웁게 달아올랐다.

그러나 리명박역적패당은 응당한 조치를 취할대신 모든것을 외면하면서 민심을 반영한 조의는 《북정권과 분리된 주민들에 대한 위로》로 격하시키고 조문단파견요구는 《남조선사회의 혼선》을 구실로 차단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수뇌부와 인민대중을 리간시키려고 어리석게 책동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선별방문》과 《제한된 답례조문단파견조치》로 민족의 어버이품으로 오고파하는 각계각층의 북행길을 전면차단하는 대역죄를 저질렀다.

슬픔은 나누면 작아지고 기쁨은 나누면 커진다.

조의와 조문이 우리 민족고유의 미풍량속으로, 조상전례의 륜리전통으로 되여온것도 바로 이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역적패당의 악행을 인간의 초보적인 리성과 도덕도 없는 반민족적인 대역죄로 락인하는것이다.

지어 역적패당은 무엄하게도 《천안》호침몰사건과 연평도포격전에 대한 《최종책임》을 우리의 최고존엄과 련계시키면서 이번 기회에 《당국의 5.24조치》를 철회하고 북남관계를 개선하려면 저들이 움직일수 있는 명분을 우리가 세워주어야 한다는 희떠운 소리까지 줴치였다.

우리와 무관한 《천안》호침몰사건과 선도발에 대응한 우리 군대의 자위적인 연평도포격전을 걸고 감히 우리 최고존엄을 건드린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수 없는 특대형 범죄이다.

여기에 있지도 않는 우리의 《급변사태》를 운운하고 존엄높은 우리 제도와 체제의 《불안정성》에 대하여 떠벌이면서 그 무슨 《변화》를 유도해보려고 모의한 죄행까지 계산한다면 역적패당의 악행은 살아숨쉴수 없는 범죄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민족의 대국상앞에 저지른 역적패당의 만고대죄와 관련하여 우리 당과 국가, 군대와 인민의 공동위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원칙적립장을 천명한다.

이미 선포한대로 리명박역적패당과는 영원히 상종하지 않을것이다.

정치적으로 무지하고 도덕적으로 저렬하며 인간의 초보적인 갖춤새도 없는 리명박역적패당과 상종한다는것은 깨끗하고 선량한 우리 민족의 수치이다.

민족의 대국상앞에 저지른 역적패당의 만고대죄는 끝까지 따라가며 계산할것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흘리는 피눈물의 바다는 그것이 그대로 역적패당을 끝까지 따라가 씨도 없이 태워버리는 복수의 불바다가 될것이며 터치는 곡성은 괴뢰들의 아성을 짓부시는 복수의 포성으로 될것이다.

아울러 민심의 공정한 대변자이며 진실한 여론의 선각자가 되여야 할 사명감을 망각하고 허위와 날조, 억측과 추측으로 역적패당의 반민족적, 반인륜적행위를 비호하고 그에 동조하고있는 남조선의 보수언론들도 응분의 징벌을 받게 될것이다.

남조선괴뢰들과 세계의 반동들은 더이상 있어본적도 없고 있을수도 없는 우리의 《급변사태》와 《체제의 불안정성》을 유도해보려고 어리석게 놀아대지 말아야 한다.

이번 대국상기간 세계앞에 보여준 전군적이며 전민적인 추모모습이 바로 혁명의 수뇌부 두리에 일심으로 뭉친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대단결모습이며 그 무엇으로도 깨뜨릴수 없는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와 체제의 불패성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변함없이 어버이수령님의 뜻을 받들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마련하신 주체의 궤도를 따라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영원히 변함없이 곧바로 나가게 될것이다.

우리는 이 기회에 남조선괴뢰들을 포함한 세계의 어리석은 정치가들에게 우리에게서 그 어떤 변화도 바라지 말라고 자신감을 가지고 엄숙히 선포한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앞으로도 북남관계개선과 평화번영의 길을 향하여 힘차게 나가게 될것이다.

우리가 바라는 북남관계개선은 리명박역적패당이 떠드는 《강경》과 《유연성》, 그것을 뒤섞은 교활한 술수에 기초한 개선이 아니다.

우리가 이룩하려는 북남관계개선과 통일, 평화번영의 대업은 자주, 평화, 통일의 기치따라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을 통한 대업이다.

세계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슬픔을 용기로, 눈물을 힘으로 바꾼 이 나라 천만군민이 어떻게 최후승리를 이룩하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것이다.

주체100(2011)년 12월 30일

평 양

김정은최고령도자는 우리 민족의 운명

위대한 장군님의 령전에서 다진 맹세를 끝까지 지켜갈 열의에 넘쳐있는 근로자들

위인의 당부, 인민의 맹세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은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맞는 2012년 새해의 언덕에서 한없는 그리움에 잠겨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슴을 뜨겁게 적시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생애의 나날 조국과 군대, 인민들이 나아갈 앞길을 밝혀주는 수많은 강령적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중에는 군대와 인민의 가슴속에 오늘도 깊이 간직되여있는 절세위인의 애국의 호소도 있다.

그날은 민족최대의 국상을 당한 다음해인 주체84(1995)년 1월 1일 아침이였다.

하늘처럼 받들어모시고 따르던 어버이수령님을 너무도 뜻밖에 잃고 온 나라는 커다란 슬픔과 비분에 잠겨있었다. 한해가 저물어갔어도 그 크나큰 상실의 아픔은 좀처럼 가시여지지 않았다.

바로 이러한 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슬픔의 바다에서 인민을 안아일으켜주시려 군대와 인민에게 애국의 뜻과 열정이 자자구구에 넘쳐나는 친필서한을 보내시였다.

《피눈물속에 1994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전사, 위대한 수령님의 제자답게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모두 한마음한뜻으로 힘차게 일해나아갑시다.

1995. 1. 1

김 정 일 》

위대한 수령님의 전사, 위대한 수령님의 제자답게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모두 한마음한뜻으로 힘차게 일해나아가자!

천만의 심장을 울린 이 친필서한은 장군님께서 인민에게 하신 절절한 호소이기 전에 자신이 수령님의 령전앞에서 다지신 엄숙한 애국의 맹세였다.

장군님께서는 그날에 다지신 맹세를 지켜 선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드시고 조국수호와 부강조국건설을 위한 전선길, 초강도강행군의 길을 쉬임없이 걸어오시였다. 그 길에는 오성산의 칼벼랑도 있었고 철령의 굽이굽이 령길도 있었으며 적의 총구가 지척에서 마주보이는 판문점도, 강계의 눈보라도, 석수 쏟아지는 지하막장도 있었다.

그 애국의 로고와 헌신이 뿌리가 되고 열매가 되여 지금 내 조국은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수 있는 문어구에 와있다.

그런데 이 모든것을 안아오신 민족의 어버이께서 쌓이고쌓이신 정신육체적과로로 하여 달리는 렬차에서 순직하시였으니 그 비통한 겨레의 심정을 이루 다 표현할 수 없다.

1994년으로부터 17년이 지나 또다시 들이닥친 민족의 대국상, 피눈물을 삼키며 군대와 인민은 새해를 맞았다.

장군님 계신다면 지금 이 시각 군대와 인민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가.

17년전의 서한이 모두의 뇌리를 친다. 수령님의 전사, 수령님의 제자들이 이런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준다.

또 생의 마지막시기에 하신 절절한 당부가 가슴을 세차게 흔든다. 김정은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진심으로 받들어야 한다시던 당부가.

우리 조국과 인민에게 있어서 이제 해야 할 사업은 헤아릴수 없이 많다. 그중에서도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중요한것은 김정은최고령도자를 잘 받들어모시는것이다.

그것은 바로 여기에 조국의 운명이 달려있고 민족의 래일이 있기때문이다. 우리 조국과 민족의 승리와 밝은 래일은 김정은최고령도자를 잘 받들어모시는데 있다.

이 절대적인 진리는 이 땅의 군대와 인민이 피눈물의 12월에 다시금 뼈에 새긴 진리이다. 위인의 령전에서 인민은 그이의 당부를 자신들의 맹세로 받아안았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끝까지 받들고 따르겠습니다!》, 《장군님! 우리를 믿으십시오.》, 《김정은동지를 높이 받들고 목숨으로 보위하겠습니다!》, 《인민군대는 김정은장군님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총대로 결사옹위하겠습니다!》…

조의식장들과 영결의 거리들, 중앙추도대회에서 누구나 한목소리로 웨친 심장의 맹세들.

그 맹세를 다시금 가슴마다에 새기며 조국의 군대와 인민은 민족의 력사에 특기할 해인 2012년의 대고조진군에 나섰다.

본사기자 명 금 룡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갈 결의를 다지는 청년들

해외동포들을 위한 위로연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해외동포들을 위하여 마련하여주신 위로연이 29일 목란관에서 있었다.

위로연에는 남승우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련조의대표단, 최은복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조의방문단을 비롯한 총련의 조의대표단들, 해외동포 조의방문단들, 해외동포들이 참가하였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양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와 로두철 내각부총리, 관계부문 일군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위로연에서는 김양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가 연설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슬픔에 잠겨있는 해외동포들을 위하여 위로연을 마련해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여기에는 위대한 장군님을 운명의 태양, 마음의 기둥으로 간직하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통일을 위하여 애국충정을 바쳐온 해외동포들이 슬픔을 천백배의 힘과 용기로 바꾸어 애국의 한길을 변함없이 억세게 걸어나갈것을 바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믿음과 사랑이 깃들어있다.

그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높이 모시여 김일성민족의 존엄이 더욱 빛났고 우리 조국은 사회주의강국으로 위용떨칠수 있었다고 하면서 조국통일을 필생의 사명으로 간직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을 마련하시여 6.15통일시대를 펼쳐주시고 온 겨레를 조국통일운동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고 피력하였다. 인민을 위해, 겨레를 위해 그처럼 높뛰던 위대한 심장은 비록 고동을 멈추었으나 장군님의 거룩한 업적과 숭고한 뜻, 자애로운 영상은 민족의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될것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언급하였다.

오늘 주체혁명위업의 진두에는 사상과 령도, 덕망과 인격, 풍모에 있어서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서계신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념원이였던 주체의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기어이 일떠세우며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고야말것이다.

남승우부의장이 연설하였다. 그는 은정어린 연회상을 마주하고보니 어버이장군님의 자애로운 모습이 어려와 북받치는 격정을 억제할수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불멸의 선군혁명실록은 길이 빛날것이며 장군님의 성스러운 존함과 자애로운 영상은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의 한길로 억세게 나아가는 조국인민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되여있을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열렬한 충정과 특출한 령도력, 인덕으로 장군님의 조국, 장군님의 인민을 피눈물의 바다에서 안아일으키고계신다. 그이의 천출위인상은 온 겨레와 진보적인류에게 끝없는 희망과 고무적힘을 안겨주고있다.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우러러모시고 백두산위인들의 고귀한 애국유산인 총련을 비롯한 해외교포조직들을 사회주의조국과 운명을 같이하는 강위력한 애국조직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겠다.

우리는 2012년을 반만년 민족사에 특기할 변혁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조국인민들의 진군에 발맞추어 세계 여러 지역 해외교포들의 애국지성을 남김없이 분출시키며 수령님의 념원이고 장군님의 리상인 내 조국의 강성부흥과 자주적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위업실현에 참답게 이바지하겠다.

김정일장군님은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우리 해외동포들과 함께 계신다.

최은복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의장, 윤길상 재미동포전국련합회 회장, 표성룡 중국조선족기업가협회회장단 회장은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심을 표시하면서 장군님의 유훈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헌신할 굳은 의지를 표명하였다.

위로연참가자들은 절세의 위인이시며 해외동포들의 영원한 스승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영생을 기원하여,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존엄과 승리의 상징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건강을 축원하여 잔을 들었다.

본사기자

김정은최고령도자님은 우리 마음의 기둥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뜻밖에도 서거하시였다는 비보가 전해졌을 때 나는 그것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다. 어떻게 하늘이 낸 위인도 가신단 말인가.

나는 급히 조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조국에 도착하여 가는 곳마다 펼쳐진 조의식장들과 사람들의 애도의 물결을 보고서야 나는 그 믿을수 없는 비보가 사실인것을 알았고 앞이 정말 캄캄했다.

장군님께서는 초강도강행군으로 이어진 현지지도의 길에서 순직하시였다고 조국의 일군들은 비통해서 말하였다. 현지지도, 인민행렬차, 이것은 그이의 한생을 관통하는 애국헌신의 대명사라고도 할수 있다. 언제인가 조국을 방문한 나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만나주시고 70, 80 이렇게 생일상도 마련해주시며 이 늙은이의 건강을 념려하시고 가정의 안녕도 축복해주신 장군님께서 먼저 가셨으니 애석함은 이를데 없었다. 하지만 나는 가슴을 부여잡고 비분에만 잠겨있지 않는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구옆에서 호상을 서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를 뵈옵고 그분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올리면서 나는 그분의 거룩한 모습에서 장군님의 모습을 보았다. 나의 두손을 따뜻이 잡아주시는 그분의 손길에서 장군님의 열화같은 체온을 느꼈고 조국의 미래가 밝고 창창하다는 것을 온넋으로 확신하게 되였다.

이미전부터 나는 모스크바나 조국에서 TV, 출판물을 통해 그분의 모습을 뵙기도 하고 조국동포들에게서 그분에 대한 많은 이야기도 들었다. 민족이 대국상을 당한 지금 나는 그분의 위인상을 가까이에서 더 잘 지켜보고 느낄수 있었다.

조국인민들은 하나같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여 마음이 든든하다고 했다.

나와 우리 온 일가의 심정도 다를바 없다.

정말이지 우리 조선민족은 령도자복, 위인복을 타고난 민족이다.

나는 우리 장군님께서 생전에 자녀들을 잘 키워 남편의 뒤를 잇도록 하라고 하신 간곡한 당부대로 위대한 김정은최고령도자를 친어버이로 믿고 따르며 온 가족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살도록 있는 힘껏 다하겠다.

새해를 맞으며 나는 조국과 민족의 미래이시며 우리 가정의 운명이고 행복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부디 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한다.

정 일 심 (재로씨야동포)

끝까지 따르리라

나에게는 오래전부터 품고있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다. 그것은 자나깨나 우리 장군님을 한번만이라도 꼭 만나뵈옵고싶은 마음속소망이였다. 장군님을 만나뵈옵고 우리가 한 일에 대해 말씀올리고 우리 황씨일가에게 돌려주신 그이의 한없는 은정에 고마움의 인사도 올리고싶었다.

그런데 자나깨나 뵙고싶고 언제나 그 품에 안기고싶던 장군님께서 급병으로 서거하시였다니 이 무슨 청천벽력같은 말인가. 아니, 그럴수 없다, 우리 장군님은 하늘이 낸 분이신데 어떻게 가실수 있단 말인가. 너무도 애통한 심정을 달랠길 없어 나는 한달음에 평양으로 달려와 그이의 령전앞에 어푸러져 목놓아 울음을 터뜨렸다.

《장군님, 장군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던 저희들이 왔습니다. 이역땅에서도 장군님만을 하늘처럼 믿고 살아왔는데 이렇게 가시면 우린 어떻게 합니까. 장군님!…》 참으로 하늘이 무너지고 지구가 통채로 깨졌다한들 이보다 더 절통할수 있으랴.

바로 이때 헤여날길 없는 슬픔의 심연속에서 우리를 안아일으켜주신분은 존경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님이시였다. 가슴을 치며 목놓아우는 저의 손을 그분께서 먼저 따뜻이 잡아주실 때, 두서없이 올리는 소박한 저의 말도 허물없이 들어주실 때 분명 나는 비애의 먹장구름을 뚫고 밝게 비치는 해살을 보았다. 우리 장군님의 모습을 보았다. 부드러운 손길, 근엄하면서도 자애에 넘친 그 모습은 정말이지 우리 장군님의 모습 그대로였다.

그때로부터 며칠후 뜻밖에도 우리는 성대한 연회에 초대되였다. 민족의 어버이를 잘 모시지 못한 우리를 위해 연회를 차려주시다니?!

후에 안 일이지만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님께서 민족의 대국상소식을 전해듣고 조국에 온 해외동포들을 위해 국가적인 연회장인 목란관에서 위로연을 잘 차려주도록 하시였다는것이 아닌가. 우리모두는 솟구치는 격정을 누를길 없었다.

분에 넘친 성대한 연회장에서 나는 17년전 어버이수령님을 뜻밖에 잃었을 때 조국에 온 해외동포들을 위해 친히 위로연을 차려주도록 해주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은정을 다시 접하는것만 같아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김정은최고령도자님은 사상과 령도력, 풍모에 있어서 우리 장군님과 꼭같으신 또 한분의 위인이시며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를 따뜻이 안아주시는 사랑의 태양이시다.

비애의 눈물을 삼키며 조국에 왔던 나는 새힘과 용기를 가지고 평양을 떠나간다.

우리 겨레에게는 민족의 오늘과 래일을 밝히는 젊으신 희세의 위인이 계신다. 우리 재중동포들은 위대한 김정은최고령도자님을 운명의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끝까지 따르겠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지린 지구협회 회장 황 진 생

《민족의 미래는 창창하다》

남조선의 인터네트매체인 《서프라이즈》는 지난해 12월 24일 《민족의 미래는 창창하다》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실었다.

《지난 12월 21일 유럽에 나가있는 한 동포류학생은 인터네트에 〈조선의 강대함〉이라는 글을 올리였다. 그는 글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서거에 가장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고 비록 뜻하지 않은 대국상을 당하였지만 조선인민은 위대한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장군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기어이 빛나게 완성할것이라는 굳은 확신과 믿음을 표명하였다. 그는 글에서 령토도, 인구도 작은 조선, 〈유일초대국〉도 감히 어쩌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함부로 범접을 못하는 조선, 이 조선의 강대함의 뿌리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하였다. 이제 우리 평양으로 눈길을 돌리자 웬일인가? 맵짠 추위가 계속되는 평양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느 한 언덕에 곧은 자세로 움직일 줄 모른다. 저긴 또 무슨 일인가? 질서가 잡혔다던 평양에, 그 어떤 소요도 없다는 평양에… 수많은 사람들이 떼를 지어 어디론가 서서히 그리고 묵묵히 걸어가고 있다. 그 끝을 따라가보라. 아— 저들은 그 어떤 소요나 그 어떤 구경거리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였다. 그들은 어디엔가 닿더니 문득 포복하며 곡성을 터뜨린다. 울고 울고 또 운다. 세찬 광풍에 뭇새들도 나서기를 주저하고 모진 추위에 소나무도 어깨를 움츠리는 평양의 추위, 그런데도 저들은 차렷자세로 서서 눈물을 흘리고 있구나. 터뜨리는 곡성에 산천초목도 머리를 숙이고있구나. 저들이 하는 말을 유심히 들어보자. 〈장군님! 이렇게 가시면 우린 어떻게 합니까.〉 〈장군님! 어서 일어나십시오.〉 〈장군님, 말은 일 더 잘할테니 제발 일어나주십시오. 장군님!〉…

아, 자기 령도자에 대한 저렇듯 뜨거운 진심…

그러면서 필자는 바로 이것이다, 령도자와 인민의 일심단결, 온 나라가 한가정이 된 불가사의한 나라 조선, 바로 이것이 조선의 강대함의 원천이라고 전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조선의 힘이 어디에 있는지, 조선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남들은 모른다며 그것은 결코 대륙간탄도미싸일도, 방사포의 일제사격도, CNC—11축어미기계도, 누구나 부러워하는 풍부한 지하자원도 아니다면서 이렇게 계속하였다.

그것은 위대한 김일성주석이 서거하시면 온갖 어려움도 이겨내며 김정일장군님을 아버지로 따르고, 김정일장군님이 서거하시면 또다시 김정은장군을 어버이로 따르는 저리도 불같은 충정의 마음들, 오직 자기 수령, 자기 당, 자기 조국밖에 모르는 저리도 소박하고 진실한 마음들이, 그런 하나와 같은 마음들이 조선의 진짜 힘이요, 진짜 모습이다. 바로 그것이 조선의 강대함이다.

위대한 김정은장군을 모시여 민족의 미래는 창창하다.》

본사기자

시

새 해 의 맹 세 가 있 다

김 태 룡

민족의 어버이를 목메여 불러찾는
피타는 그리움이
저 하늘에 타오르는가
새해 2012년이여 너의 하늘은
불타는 겨레의 그리움으로 더더욱 붉다

애오라지 한평생
통일을 위해 사신 장군님
비애의 12월은 흘러가지 않고
가슴에 새겨져있어도
통일열망으로 밝아온 새해
그 날과 달에 겨레와 함께 계시리

저 하늘의 따사론 태양으로 받들고
이 땅의 영원한 어버이로 모셔갈 마음
하기에 우리 장군님께
눈물에 젖은 흰꽃이 아니라
충정의 붉은 꽃을 드리는 새해여

그리움으로만 맞고 보내지 않으리라
이 강산에 꽃이 피면 그 꽃을
겨레에게 베푸시던 사랑으로 안고살리
이 강산에 눈이 내리면 그 눈을
통일 위해 바쳐오신 로고로 안고살리

오, 우러러보라
그 사랑에 사랑을 합쳐주시며
그 심혈에 심혈을 이으시며
장군님의 통일위업 빛내가실분
민족의 진두에 거연히 서계시는
영명하신 김정은최고령도자

이제 그이 조국통일3대헌장
6.15의 기치높이
우리 장군님 그토록 열망하신
조국통일 그날로 인도하시려니
그이 따라 억세게 걸어갈 신념
겨레의 가슴에 산악으로 솟아있다

새해의 첫아침 겨레의 이 맹세
이해의 마지막날까지 변치 않을 해여
오, 2012년이여 7천만은 너를
김정일장군님의 해로 빛내리라!
김정은최고령도자의 해로 떨치리라!

위대한 령도따라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7천만 겨레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너무도 뜻밖에 잃은 비통함에 가슴치며 몸부림치던 피눈물의 해 2011년을 보내고 우리 겨레는 주체101(2012)년 새해의 출발점에 섰다.

돌이켜보면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한생은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한없이 숭고한 조국애와 민족애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을 위하여 영원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신 절세의 애국자의 위대한 한생이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찌기 통일을 기다릴것이 아니라 앞당겨오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쳐오시였다.

그이께서는 비범한 예지로 매시기, 매 단계마다 조국통일운동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으며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사상과 정견,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한피줄을 이은 민족의 한 성원으로서 굳게 단합하여 조국통일위업실현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받들어 조국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하실수 있는 모든것을 다하시였다.

오늘도 우리 겨레의 눈앞에는 짙은 안개 드리운 판문점에 통일령도의 거룩한 자욱을 새겨가시며 수령님의 뜻대로 분렬의 상징인 판문점을 통일의 상징으로 바꾸어놓으시려는 굳은 결심을 천명하시던 어버이장군님의 숭고한 영상이 가슴미여지게 안겨온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자》를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여 우리 겨레가 조국통일위업실현에서 높이 들고 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을 마련하여주시였다.

장군님께서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밑에 전진하는 력사적인 6.15통일시대를 펼쳐놓으심으로써 반목과 질시, 대결과 불신이 지배하던 이 땅우에 민족적단합과 화해,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이 열리게 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한없이 넓은 도량과 포옹력, 뜨거운 동포애로 분렬의 비극을 끌장내기 위한 중대조치들을 취하시여 민족의 통일열기를 끊임없이 고조시키시고 선군의 위력으로 안팎의 분렬주의세력의 반통일전쟁책동을 짓부셔버리시며 이 땅의 평화를 수호하고 겨레의 자주통일투쟁을 힘있게 떠밀어주시였다.

한없이 숭고한 인정미와 하늘같은 덕망으로 남녘의 각 당, 각파, 각계 인사들, 동포들과 허물없이 만나시여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시고 민족문제해결에서 지침으로 되는 교귀한 가르치심과 명쾌한 해답을 주시던 장군님의 인자하신 모습은 오늘도 우리 겨레의 가슴을 세차게 울리고있다.

민족적량심을 지니고 조국통일을 지향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든 단결하여 조국통일의 한대오에서 굳게 손잡아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이시다.

확고한 자주통일의지와 애국애족의 대용단으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을 이룩할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업적은 민족의 통일운동사에 영원히 빛날것이다.

우리 겨레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시대와 민족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통일령도업적을 철저히 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반드시 성취하여야 한다.

우리 민족에게는 조국통일의 앞길을 휘황히 밝히는 조국통일3대헌장과 6.15공동선언, 10.4선언이 있다.

우리 민족이 조국통일을 이룩하려면 조국통일3대헌장과 북남공동선언들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가야 한다.

조국통일3대헌장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생명으로 여기는 민족자주정신으로 일관되여있으며 북과 남의 화해와 전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여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려는 숭고한 조국애와 민족애를 구현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제시하시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정립하여주신 조국통일3대헌장은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오래동안 존재하여온 우리 나라의 현실적 조건과 통일을 갈망하는 온 민족의 한결같은 지향에 맞게 하루빨리 조국통일을 실현할수 있는 가장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방도를 밝혀주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 겨레에게 안겨주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민족자주의 선언, 민족대단결의 선언이며 조국통일의 대강이다. 력사적인 선언들에는 지금까지 년대를 거치며 각급에서 이룩된 북남합의들이 전면적으로 집대성되여있으며 그것은 북남관계의 근본원칙과 기초를 이루고있다.

불멸의 통일강령들인 조국통일3대헌장과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철저히 관철하는데 통일의 길이 있다.

우리 겨레의 통일위업이 승승장구해나가자면 단결의 중심이 있어야 한다.

우리 민족이 나아가는 통일의 앞길에는 또 한분의 천출위인,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서계신다.

위대한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우리 겨레의 통일위업을 승리에로 이끌어가실 뛰여난 예지와 탁월한 령도력을 지니고계신다.

백두산위인들의 무비의 담력과 배짱, 풍모를 그대로 이어받으신 그이는 반통일세력의 온갖 침략과 전쟁책동을 짓부시고 자주통일운동을 힘차게 이끌어가실 희세의 위인이시며 온 겨레를 한품에 안아 통일운동의 넓은 대하에 내세워주실 크나큰 도량과 인덕을 겸비하신분이시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과 꼭 같으신 위대한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령도따라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꾸어 산악같이 일떠서서 장군님의 애국애족의 숭고한 뜻을 이 땅에 하루빨리 현실로 꽃피워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은 영원히 우리 겨레와 함께 계시며 그이께서 그처럼 바라시던 자주통일의 그날은 밝아오는 강성대국의 아침과 더불어 반드시 오고야말것이다.

최광혁

북남공동선언은 자주통일의 기치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탁월한 선견지명과 애국애족의 대용단으로 조국통일의 리정표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마련해주시고 그 리행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여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위업실현에서 획기적인 전환적국면을 열어놓으시였다.

조국통일의 숭고한 사명감을 지니시고 시대와 민족앞에 쌓아올리신 장군님의 통일령도업적은 우리 민족사에 빛나게 아로새겨져 무궁번영할 통일조국과 더불어 길이 빛나게 될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필생의 위업이였으며 최대의 념원이였던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이룩하자면 해내외의 온 겨레가 힘을 합쳐 북남공동선언들을 철저히 고수리행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통일을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우리 겨레에게 안겨주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번영을 위한 강령적기치이다.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인 북남공동선언들에는 겨레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리념적기초와 근본원칙, 실현방도들이 다 밝혀져있다.

6.15공동선언은 불신과 반목, 대결의 력사가 흐르던 이 땅에 민족적화해와 단합, 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놓은 조국통일의 표대이다. 10.4선언은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기초하여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힌 행동지침이며 실천강령이다. 북남공동선언들에는 지금까지 년대를 거치며 각급에서 이룩된 북남합의들이 전면적으로 집대성되여있으며 그것은 북남관계의 근본원칙과 기초를 이루고있다.

북남공동선언들에 관통되여있는 우리 민족끼리리념에는 조국통일의 주체인 우리 민족이 주의주장과 당리당략을 초월하여 하나의 민족으로서 굳게 손잡고 단결할데 대한 사상이 담겨져있다.

이 력사적인 선언들에 의해 북남관계발전과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는 일대 전환적국면이 열리였다. 6.15이후 북남사이에 진행된 다방면적인 대화와 접촉들, 민족공동의 통일행사들과 여러 분야의 협력과 교류들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고 북남관계를 발전시키는데서 경이적인 성과들을 안아왔다.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활로를 열어놓은 6.15시대를 통하여 북과 남의 우리 겨레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철저히 리행해나갈 때에만 나라의 통일을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실현할수 있다는것을 똑똑히 새겨안았다.

그런데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밑에 과감하게 전진해온 겨레의 통일운동은 남조선에서 보수당국이 출현하면서 엄중한 도전에 부딪쳤다.

집권초기부터 《잃어버린 10년》을 떠들면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전면부정해온 남조선당국은 극도의 대결정책과 화약내 풍기는 북침전쟁연습에 매달리면서 북남관계를 대결과 전쟁접경에로 몰아갔다. 시대착오적인 《비핵, 개방, 3000》을 《대북정책》으로 내든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은 북남공동선언을 지지하는 단체와 인사들을 《친북좌파》, 《리적》으로 몰아 가혹하게 탄압해나섰다. 지난해에도 남조선당국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기초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실현할 일념밑에 공화국이 취한 대범하고 아량있는 조치들을 그 무슨 《진정성》을 운운하며 악랄하게 헐뜯었다.

남조선보수당국의 반민족적, 반통일적망동은 북남관계개선과 나라의 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의 커다란 격분을 자아냈다.

북남공동선언들을 철저히 고수리행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실현하며 나라의 평화를 수호하는것은 오늘 우리 민족앞에 나서고있는 가장 절박한 과제이다.

지나온 현실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떠나 북남관계발전과 민족의 화해와 협력, 나라의 평화와 통일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는것을 웅변으로 실증해주고있다.

북남공동선언을 철저히 리행하여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기어이 실현하려는것은 공화국의 일관한 립장이며 변함없는 의지이다.

온 겨레는 민족최대의 숙원인 통일을 위해 그토록 마음써오신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를 잃은 커다란 슬픔을 천백배의 힘과 용기로 바꾸어 북남공동선언들을 철저히 고수리행해나가기 위한 투쟁을 보다 거족적으로 벌려나감으로써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하루빨리 성취하여야 할것이다.

윤현주

통일문제때문에 찬눈비 맞지 않으시게

조국통일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필생의 위업이였으며 최대의 념원이였다.

우리 장군님께서는 조국과 민족을 위한 성스러운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쳐오시였다.

조선은 하나로 합쳐져야 살고 둘로 갈라져서는 살수 없는 유기체와 같다고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 그이의 심중에는 언제나 하나의 조선, 한지붕아래 자주적삶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갈 겨레의 모습만이 자리잡고있었다.

지구를 몇십바퀴 돌고도 남을 현지지도의 길을 걸으시면서도 조국의 남해가에는 이르지 못하신 어버이수령님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고, 그래서 분렬된 조국의 하루하루가 흘러가는것이 정말 가슴아프다고 마음속 피로움을 터치시던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장군님께서는 늘 일군들에게 우리는 새벽에 일어나 창문을 열 때에도 조국통일을 생각하고 밤에 불을 끄고 잠자리에 누울 때에도 조국통일을 생각하여야 하며 꿈을 꾸어도 조국통일에 대한 꿈을 꾸어야 한다고, 우리의 모든 생각은 조국통일과 잇닿아있어야 하고 우리의 모든 사업은 조국통일에로 지향시켜 진행되여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군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바로 이렇게 한평생을 바쳐오시였다. 위대한 애국헌신의 열기로 온몸을 불태우시며 조국통일과 민족만대의 번영을 위한 길을 끝없이 걸으시였다. 조국과 겨레를 위해 우리 장군님께서는 양복차림 한번 못해보시고 고난의 행군때 입으셨던 그 야전복을 그대로 입으신채 순직하시였다.

민족과 통일을 위해 그토록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신 어버이장군님을 통일의 광장에 모시지 못한것은 참으로 가슴터지는 일이고 통일사업을 하는 우리 일군들이 지은 막중한 죄이다.

우리가 일을 잘해서 장군님의 심려를 덜어드려야 하는건데 그렇게 못하였다.

이제 한분밖에 안계시는 위대한 김정은동지께서 조국통일문제때문에 찬눈비 맞지 않으시게, 장군님처럼 험한 길을 걷지 않으시게 우리들이 맡은 일을 더 잘하며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어버이장군님의 통일유훈을 기어이 현실로 꽃피우겠다.

조국통일연구원 부원장
리금철

통일대행진을 더욱 힘차게

청천벽력같은, 믿을래야 믿을수 없는 대국상을 당한 겨레의 피눈물의 곡성이 가셔지지 않은 이 땅에 새해가 밝았다.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야전복을 벗지 못하시고 조국과 민족을 위해 우리 장군님 순간의 휴식도 없이 불철주야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다가 달리는 야전렬차에서 순직하셨으니 날이 가고 세월이 흐른들 이 비통함이 어찌 가시여질수 있으랴.

분렬로 고통받는 우리 겨레에게 통일된 조국을 안겨주시기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와 심혈을 바치시며 한평생 그리도 마음써오신 우리 장군님이시다.

위대한 장군님의 심장은 비록 고동을 멈추었지만 그이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사상과 리론들은 우리 민족이 나아갈 통일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고있다.

오늘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과 꼭 같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서계신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는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비범한 천품, 숭고한 덕망을 그대로 이어받으신 또 한분의 천출위인이시다.

어버이장군님께서 조국통일의 길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이 있고 위대한 김정은최고령도자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조국통일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새해의 이 아침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안의 전체 일군들은 오늘의 슬픔을 천백배의 힘과 용기로 바꾸어 해내외의 온 겨레와 함께 거족적인 통일대행진을 힘차게 벌려나감으로써 위대한 장군님의 조국통일유훈을 이 땅에 하루빨리 현실로 꽃피우겠다는것을 굳게 결의한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
참사 전병훈

《북남공동선언을 마련하신 위대한분》

남녘의 각계가 칭송

남조선의 각계 인사들과 단체들은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고 북남공동선언들을 철저히 리행해나갈 결의들을 피력하고있다.

남조선의 전 《국무총리》 한명숙, 《국회》의원 박지원을 비롯한 야당인사들은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 남조선의 전직 《대통령》들과 합의하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정신은 앞으로도 존중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로무현재단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남북관계발전을 위해 마련하신 10.4선언을 리행하는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남조선의 시민단체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추모성명에서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발표하시여 조국통일의 리정표를 마련해주신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의 업적과 로고는 민족사에 길이 전해질것이라고 격찬하였다.

《한반도평화포럼》이 발표한 조의문에는 국방위원장께서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통해 불신과 대결의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헌신하시였다고 지적되여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김정일국방위원장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채택하신 위대한분이시라고 칭송하였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는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언론분과위원회에 보낸 조전에서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의 리정표로 마련해주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우리 민족사에 길이 빛날것이며 슬픔과 아픔을 굳건히 이겨내고 남과 북이 조국통일실현에 정력을 바치자고 강조하였다.

남조선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는 북측의 민족화해협의회에 보낸 조전에서 앞으로도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따라 남북의 화해와 협력, 공동번영을 위한 길에서 굳게 협력하고 련대해나갈것이라고 밝혔다.

본사기자

장군님 마련해주신 강성국가건설의 튼튼한 토대

★★★★★

여기에 이런 수자가 있다. 민족의 어버이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서거이후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현지지도에 대한 보도건수는 무려 1 700여건, 그중에서도 생애의 마지막해인 2011년현지지도 보도건수는 백수십여건에 달한다.

17년전,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모두 한마음한뜻으로 일해나가자고 하시며 초강도현지지도의 길을 더욱 다그치신 위대한 장군님.

한평생 인민행렬차를 타시고 불면불휴의 로고와 심혈을 바치신 민족의 어버이의 애국헌신의 대장정이 있어 오늘날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강성국가건설의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였다.

공화국은 령도자와 군대와 인민이 하나의 사상과 의지, 도덕의리로 일심단결된 정치사상강국이다.

령도자는 군대와 인민을 친혈육과 같이 아끼고 위해주고 군대와 인민은 자기의 령도자를 친어버이로 믿고 따르며 모든 운명을 의탁하는것이 공화국의 일심단결의 참모습이다.

지난해 12월말 하늘처럼 믿고 살던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너무도 갑자기, 너무도 일찌기, 너무도 애석하게 잃고 모두가 상제가 되여 목놓아울며 슬픔에 몸부림치는 인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계는 그이께서 인민의 심장속에 얼마나 깊이 자리잡고계신 분이시였는가 하는것을 깊이 느낄수 있었다.

공화국의 일심단결은 령도자와 인민이 하나의 뜻과 의지, 순간도 떨어져 못사는 절절한 그리움에 기초하고있으며 그것으로 하여 공화국은 이 세상에서 자주적대가 확고히 선 존엄있는 나라로 그 위용을 만방에 떨치고있다.

오늘 공화국은 그 어떤 제국주의침략세력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되였다.

주먹이 약하면 그 주먹으로 제 눈물을 닦아야 한다는 말이 있다. 한세기전 군력이 약한탓에 외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지노예의 멍에를 써야 했던 조선이 오늘은 인공지구위성도 마음먹은대로 쏴올리고 자위적핵억제력도 갖추었다.

2009년 4월 자체의 힘과 기술로 만들어낸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를 발사할 때 있은 일이다. 제국주의세력은 공화국의 인공지구위성발사를 막아보려고 《군사적응징》이요, 유엔을 통한 《제재결의안》이요 뭐요 하면서 필사적으로 발악하였지만 공화국은 자주권을 당당히 행사하여 위성발사국, 보유국의 위용을 더 높이 떨치였다.

제국주의의 봉쇄의 그물을 뚫고 우주로 치솟은 《광명성2》호의 발사성공에 온 겨레가 격동하고 세계가 끓었다.

《온갖 방해와 협박을 누르고 조선이 자주국임을 전세계에 당당하게 선포한 큰 사변》, 《민족통일과 민족의 웅비의 시작을 알리는 대사변》…

세계의 경찰관행세를 하며 약소국가들에 대해 마음대로 삿대질하고 전쟁도 서슴없이 일으키는 미국이 어찌하여 공화국만은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가. 그것은 공화국이 그 어떤 대적도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필승불패의 군력을 가지고있기때문이다.

남조선과 해외동포들이 전쟁의 불구름이 항시적으로 짙게 드리운 조선반도에서 지난 수십년간 평화가 유지되고있는것은 바로 공화국의 막강한 군력이 있기때문이라고 하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오늘 공화국은 과학기술을 추동력으로 하여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켜 지식경제형경제강국의 높은 단계에로 도약하고있다.

허리띠를 조여매고 사면팔방에서 덤벼드는 제국주의련합세력과 결사전을 벌리던 지난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공화국은 기계제작공업의 CNC화를 실현하는것으로부터 나라의 경제전반을 활성화하는 지름길을 선택하였다.

장군님께서는 생전에 CNC화의 초행길을 걸으시던 그때를 자주 회억하시면서 당시 자신에게는 얼마간의 돈밖에 없었다고, 사실 그 돈으로 식량을 사올수도 있었지만 인민들이 고생하는것을 보면서도 앞을 내다보고 얼마 되지 않는 자금을 나라의 현대화에 돌리기로 결심하였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

장군님께서는 공화국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자체의 힘으로 개발해낸 CNC기술이 첨단을 돌파했을 때 그것을 본보기로 하여 온 나라에 CNC바람, 최첨단돌파열풍을 세차게 일으키시였다.

모든 분야에서 최첨단을 돌파하자는 구호밑에 온 나라에 휩쓴 최첨단돌파열풍은 짧은 기간에 인류가 걸어온 지식경제화의 단계들을 단번에 뛰여넘는 새 세기 산업혁명을 일으켜 지식경제형경제강국건설의 새시대를 펼치는 기적같은 현실을 낳았다.

세계적인 공작기계공장으로 일떠선 희천련하기계종합공장의 전변은 지식경제시대에 들어선 공화국의 자립경제의 면모를 온 세상에 과시하였다. 세계야금계의 기적이라 일컫는 주체철사변도, 나프사에 의한 비료생산체계에 종지부를 찍은 주체비료폭포도, 자체의 무진장한 원료에 기초하고있는 주체섬유인 비날론솜과 비날론천의 본격적인 생산도 경제의 주체화, 현대화가 얼마나 위력한것인가를 웅변으로 실증해주고있다.

공화국은 이제는 결심만 하면 지열수와 태양열에네르기리용과 같은 첨단기술도 개발해내고 세계적수준의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을 비롯한 과수기지들, 현대적인 양어기지들, 최신설비로 장비된 식료공장들을 도처에 건설해놓고 인민생활을 강성국가의 수준에로 끌어올릴수 있는 확고한 경제적 토대를 갖추게 되였다.

어버이수령님탄생 100돐을 맞는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제낄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닦아진것은 전적으로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애국헌신의 대장정이 낳은 고귀한 결실이다.

예로부터 땅과 강을 길들이는 일은 위인만이 할수 있다고 하였다.

허나 산천도, 사람도 포함한 나라전체를 세계으뜸의 경지에 올려세우는 일은 특출한 자질과 령도력을 지닌 희세의 위인만이 할수 있는 거창한 위업이다.

불과 10여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공화국을 강성국가의 문어구에 들어서는 높은 경지에 올려세우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은 정녕 동서고금에 없는 걸출한 위인이시다.

하기에 새해를 맞이하는 뜻깊은 이 시각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강성국가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쌓아올리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거룩한 생애를 감회깊이 돌이켜보며 그이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해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강성국가건설유훈이 찬란히 꽃펴나는 속에 그이의 력사는 끝없이 흐르고있다.

박성일

자체의 힘과 기술로 만들어낸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

세계적인 공작기계공장으로 일떠선 희천련하기계종합공장

주체철에 의한 선진적인 제강법을 완성한 성강의 로동자, 기술자들

온 나라에 대경사를 안아온 주체섬유 비날론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에서 생산된 비료들

수평방사에 의한 비날론섬유 생산을 다그치고있다.
—2.8비날론련합기업소에서—

갖가지 양말들을 생산하고있다. —평양양말공장에서—

날바다우에 일떠선 대계도간석지

현대적인 철갑상어양어기지—룡정양어장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이바지할 속성식품을 많이 생산하고있다.
—금성식료공장에서—

현대적이며 종합적인 대규모과일생산기지—대동강과수종합농장

선군시대의 본보기로 일떠선 만수대거리

어버이수령님탄생 100돐을 민족최대의 명절로

세해의 첫 기슭에서

피눈물이 흐르는 이 강산에 주체101(2012)년 새해가 밝아왔다.

김일성조선의 주체100년사를 긍지높이 총화하고보다 휘황찬란한 새로운 100년사를 맞이하는 이 시각, 가장 위대한 령도자, 가장 위대한 스승, 가장 위대한 어버이를 천만뜻밖에 잃고 새해를 맞이하는 비통함과 애석함이 이 나라 천만대중의 심장속에 고패친다.

새해가 올 때마다 기다리던 신년사, 고난의 천리를 헤치면서 10여년세월 새해 첫 아침이면 장군님의 자애넘친 음성을 들을가 고대해온 인민들, 강성국가의 문어구에 들어서는 올해에는 꼭 그이의 신년사를 육성으로 들을것이라고 기쁨속에 그려보았는데 이제는 소박한 그 소원마저 이룰수 없게 되였으니 안타까운 마음 진정할수 없다.

위대한 어버이를 모시지 못하고 맞이하는 새해를 상상조차 못해본 이 나라 인민들이 새해의 첫 아침 경애하는 장군님을 사무치게 그리며 목메여 부르고 있다. 절세의 위인을 그리는 인민의 간절한 마음, 그것은 가슴이 무너지는 비애와 슬픔을 천백배의 힘과 용기로 바꾸어 위대한 장군님의 한생의 뜻과 유훈을 기어이 실현하고야말 철석의 신념과 의지로 승화되고 있다.

가슴저미는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꾸어 화차수리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평양조차장객화차대에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단 한순간의 휴식도 없이 찬눈비 내리는 초강도현지지도강행군길을 불철주야로 이어가시며 조국과 민족만대의 무궁번영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다 마련하여주시였다.

잠시라도 쉬시옵기를 인민들이 간절히 바랄 때마다 강성대국의 대문이 열리는 그때 축배를 들며 기쁨을 나누자고 하시며 승리한 래일을 환한 미소속에 그려보시던 그이의 자애로운 영상을 온 나라 인민은 영원히 잊지 못한다.

그이의 현명한 령도로 공화국은 일심단결된 불패의 정치사상강국으로, 그 어떤 원쑤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되였다.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인공지구위성을 쏴올리고 최첨단CNC기계도 척척 만들어내게 되였으며 주체철, 주체비료, 주체섬유를 팡팡 생산하는 등 경이적인 사변을 련이어 터뜨리며 보무당당히 지식경제형경제강국에로 달음쳐나가게 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구상과 념원인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한 대고조진군의 앞장에 오늘은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서계신다.

사상과 령도, 덕망에서 위대한 장군님 그대로이신 김정은최고령도자를 모시여 공화국의 앞날은 더욱 휘황찬란하다.

민족의 어버이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을 잃고 맞이한 1995년 새해의 첫 아침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모두 한마음한뜻으로 힘차게 일해나가자는 장군님의 친필서한을 받아안고 주석의 유훈관철을 위해 일떠섰던 군대와 인민의 기상이 오늘도 나래치고있다.

뜻깊은 새해의 아침이 밝은 지금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우리 민족의 운명이시고 미래이신 김정은최고령도자를 따르는 길에 나라와 민족의 부강번영, 밝은 미래가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함남의 불길,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을 더 높이 지펴올림으로써 강성부흥의 그날을 하루빨리 앞당겨올 굳은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본사기자 박 금 일

태양칭송의 꽃바다 펼치겠다

올해는 조국해방의 은인, 사회주의조국의 시조, 주체의 강성국가건설위업의 개척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 탄생 100돐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우리 민족과 세계 진보적인류가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우리 나라를 자주, 자립, 자위의 강국으로 일떠세우시였으며 인류자주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어버이수령님은 세기와 세기를 이어 우리 인민과 인류의 마음속에 영생하고계신다.

우리 조선김일성화 김정일화위원회에서는 수령님탄생 100돐이 되는 태양절을 맞으며 절세위인을 그리는 온 민족과 세계인민들의 한결같은 경모의 마음을 담아 가장 성대한 규모와 최상의 수준에서 열릴 김일성화축전을 준비하고있다.

지난해에 이미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맞으며 태양의 꽃축전이 진행된다는 소식에 접한 수많은 단체들과 기관, 기업소를 비롯하여 가정들과 개별적사람들속에서 태양의 꽃 재배와 관련한 과학기술적문제들에 대해 문의하여왔는데 그 수는 지난 시기에 비해 훨씬 늘어났다. 해외동포들과 외국의 벗들도 더 많이 참가할것으로 예견된다.

우리는 그에 맞게 사상예술성이 보장되고 조형적인 특성을 가진 축전장으로 만들기 위해 축전장총형성도안과 부분형성도안형상에 최선을 다하고있고 축전선전화와 상장창작준비를 마감단계에서 다그치고있다.

또한 축전조직위원회 모든 성원들의 진지하고 열띤 활동에 의해 축전참가자들을 위한 겨울철조건에 따르는 김일성화재배방법이 널리 보급되고 재배에 필요한 약재보장도 끝났다.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 인류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막을 열게 될 제14차 김일성화축전은 절세의 애국자, 전설적위인이시며 우리 민족과 인류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만민의 절대적인 신뢰와 다함없는 경모심이 얼마나 강렬한것인가를 보여주게 될것이다.

축전조직위원회에서는 이와 함께 탁월한 사상리론과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조국과 혁명, 시대와 력사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 인류의 절절한 그리움을 담아 그이의 탄생 70돐을 맞으며 진행될 제16차 김정일화축전도 성대히 준비하고있다.

2월의 태양의 꽃축전은 위대한 장군님을 천세만세 받들어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륭성번영하는 불패의 강국을 향하여 질풍같이 내달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과 의지를 과시하며 절세위인에 대한 만민의 끝없는 경모심을 뜨겁게 보여주게 될것이다.

나는 축전조직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4월의 봄명절에 김일성화 만발한 아름답고 화려한 꽃바다, 만민의 열화같은 흠모와 칭송의 화원을 펼쳐 어버이수령님 탄생 100돐을 민족최대의 명절, 인류공동의 명절로 뜻깊게 장식하는데 적극 기여하겠다.

조선김일성화김정일화위원회
축전조직국장 리 병 파

주체101(2012)년 새해우표가 나왔다

주체101(2012)년 새해를 맞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우표발행국에서는 우표를 발행하였다.

2012년은 국력이 강하고 모든것이 흥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이 사는 강성국가의 대문이 열리는 력사적인 해이다.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하는것은 민족의 어버이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한생의 뜻과 념원이였다.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기치밑에 한평생 조국의 존엄과 부강번영을 위한 애국애족의 길을 끊임없이 걷고걸으신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리상이 실현되는 뜻깊은 해라는 의미에서 우표는 태양의 꽃 김일성화를 중심으로 주체사상탑과 현대적인 살림집들이 수풀처럼 일떠선 모습을 형상함으로써 만복이 꽃펴나게 될 공화국의 현실을 실감있게 보여주고있다.

우표에는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령도따라 김일성조선의 새로운 100년대를 더욱 빛내이며 통일강성대국을 기어이 일떠세울 군대와 인민의 철석의 신념과 의지가 반영되여있다.

우표에는 《새해를 축하합니다》, 《주체101(2012)》 라는 글이 새겨져있다.

본사기자

인민소비품생산에서 결정적전환을

지난해에 온 나라의 경공업공장들과 지방공업공장들에서 인민소비품생산을 늘이기 위한 증산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도처에 현대적인 식료품생산기지들이 꾸려져 인민생활을 윤택하게 해나갈수 있는 튼튼한 밑천이 마련되였다. 평양곡산공장과 대동강식료공장, 평양밀가루가공공장, 선흥식료공장들에서 생산공정의 현대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되였다. 특히 금성식료공장 밀쌈직장이 속성식품생산기지로 훌륭히 일떠서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서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다. 현대적인 평양8월풀가공공장에서 생산한 맛이 좋고 당도가 높은 8월풀당가루가 식료공장들에서 단맛감으로 널리 쓰이고있다.

각지 지방공업공장들의 현대화도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되였다. 삼일포특산물공장과 같은 현대적인 종합식료공장들이 도처에 일떠서 지방의 풍부한 원료원천에 의거하여 맛좋고 영양가높은 갖가지 식료품들을 생산하고있다.

일용품생산에서도 적지 않은 성과가 이룩되였다. 지난해 평양에서 진행된 제2차 평양제1백화점 상품전시회장은 하나의 경공업전시관을 방불케 하였다. 세수비누와 화장품, 머리빈침, 위생종이, 수지연필, 신발 등 우리의 상표가 붙은 질좋은 일용품들이 매대마다 쌓여있는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우리의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깊이 간직하였다.

이 모든 성과는 오로지 인민의 행복과 기쁨을 위해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쳐오신 어버이장군님의 현명한 령도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지난해만 해도 우리 인민들에게 맛좋은 식료품들과 다양한 생활용품이 하나라도 더 차례지도록 하시려 불어치는 찬바람, 눈비를 다 맞으시며 현지지도강행군길을 걷고 또 걸으신 어버이장군님이시였다.

1월의 강추위속에서 룡악산샘물공장을 찾으시여 인민들이 샘물을 마시기 편리하게 작은 병에도 담아야 한다고 세심히 가르쳐주시고 정방산종합식료공장을 비롯한 사리원시안의 경공업공장들을 찾으시여서는 식료품의 가지수와 질문제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알아보신 장군님, 생애의 마지막시기에도 현대적으로 꾸려진 광복지구상업중심을 찾으시여 상품들이 가득 채워진것을 보니 추운 날인데도 마음이 후더워진다고 그리도 환하게 웃으시던 우리 장군님이 아니시였던가.

슬픔을 천백배의 힘과 용기로!

이는 피눈물의 2011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 이 나라 인민들의 심장의 맹세이다. 빙산도 녹이고 바위도 불태울 뜨거운 맹세속에 만수대지구건설장에서 하루가 다르게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고있다.

만수대지구건설은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맞으며 평양시를 보다 훌륭히 꾸려주시기 위해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몸소 발기하시고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가슴뜨거운 사연이 깃들어있는 건설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 하루빨리 완공의 보고를 드릴 충정의 일념을 안고 착공의 첫날부터 끊임없이 새로운 평양속도를 창조하며 45층살림집골조공사도 단숨에 해제낀 만수대지구건설자들이건만 영광의 그날이 오기 전에 하늘이 무너지는듯 한 비보에 접하게 될줄은 누구도 몰랐다.

지금도 그들의 가슴속에는 지난해 9월 온 나라 인민들이 공화국창건 63돐을 맞는 환희에 젖어있던 그 시각 건설장을 찾으시였던 경애하는 장군님의 환하신 영상이 생생히 새겨져있다. 불과 몇달사이에 본래의 모습을 완전히 털어버리고 희한한 멋쟁이거리로 변모되고있는 만수대지구를 돌아보시며 그리도 기뻐하시던 장군님. 그런데 그이께서 이렇게 갑자기 우리곁을 떠나시다니…

하늘이 무너지는듯 한 비통한 마음을 누를길 없어 만수대언덕에 올라 눈물을 뿌리며 경애하는 그이를 목놓아 부른 건설자들이였다. 허나 그들은 울고만있지 않았다. 가슴터지는 슬픔을 강잉히 누르며 산악같이 일떠섰다.

—우리가 맡은 만수대거리가 어떤 거리인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탄생 100돐을 맞으며 우리 인민에게 안겨주시는 크나큰 선물이 아닌가. 하루빨리 완공의 그날을 앞당기는것으로써 장군님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하자.

바로 이것이 만수대지구건설자들의 가슴속에서 세차게 고패친 하나의 생각이였다.

지금 만수대지구건설장에서는 살림집건설과 함께 20여동에 달하는 공공건물 및 봉사시설건설이 립체적으로 추진되고있다. 착공의 그날로부터 몇달 안되는 짧은 기간에 만수대지구의 많은 건설대상공사들이 마감단계에 들어섰다.

건설지휘부에서는 전반적인 건설대상들에 필요한 마감건재와 건구들을 원만히 보장하는데 큰 힘을 넣고 공사조직과 지휘를 잘 짜고들고있다. 시공단위 지휘관들과 건설자들은 맡은 공사를 하루빨리 높은 질적수준에서 끌내기 위한 대담하고 통이 큰 목표를 내걸고 공사조건을 주동적으로 마련하면서 건설실적을 높이고있다.

초고층살림집건설을 맡은 군인건설자들은 방수공사와 급수관설치, 난방공사를 비롯한 마감공정수행에서 전투적인 일본새를 남김없이 발휘하여 맡은 살림집공사들을 계획보다 훨씬 앞당겨 끌낼수 있는 확고한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맡은 건축물공사와 건설장의 도로정리를 동시에 추진하는 여러 단위의 건설자들도 높은 실적을 내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할 일념을 안고 새 기적창조를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선 건설자들에 의하여 만수대지구건설장은 지금 안팎으로 새 모습을 드러내고있다.

이제 머지 않아 세계는 평양의 중심부인 만수대지구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뜨거운 인민사랑에 떠받들려 일떠선 초고층호화살림집으로부터 각종 봉사망과 문화시설들이 높은 수준에서 갖추어진 조선식의 번화가를 보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 춘 경

완공단계에 들어선 만수대지구건설

주 소 : 평 양 통 일 신 보 사 (해외동포여러분의 서면련락주소: 조선평양 국제우편국사서함 제150호) 전화: 책임주필실 366-0732, 편집국 366-0522 편 집 위 원 회